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7월호를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임원회

7/7(주일) 1부 2부 예배 직후, 2024년 정기임원회가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각 사역부와 위원회에서는 보고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목회보고, 사역보고, 전반기(1월-6월)재정보고/감사보고 등

• 세대별 모임

3040 모임 / 오늘(6/23) 2부 예배 후에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안건- 기도회, 조직구성 및 행사계획. *문의- 김세희 집사

60 남 모임 / 6월 30일(주) 오후 12:30에 모임이 있습니다. (초등부실)

*안건- 조직구성 및 행사계획. *문의- 황홍섭 권사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유아유치부 VBS]

*일정: 7월 26일(금) ~ 28일(일)

*주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요1:3)

[초등부 VBS]

*일정: 7월 26일(금) ~ 28일(일)

*주제: Escape the Egypt!!! (Deut 5:15)

[중고등부]

*JAMA Leadership Conference (7/1-5): Texas

*GMC Youth Retreat (7/15-18): St.Simon Island, GA

교육부 소식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Youth (중고등부) 안내

JAMA Leadership Conference (7/1-5): Texas

GMC Youth Retreat (7/15-18): St.Simon Island, GA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EM-다문화.Youth/ 김학섭 목사, 유초등부/ 이지연 전도사
- 유아유치부.미디어/ 윤성민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 오르간/ 1,2부 조흥숙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학섭 노재승
- 방송.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29,624.00

일반헌금 \$20,654.00	십일조: \$12,770.00 주일: \$1,235.00	남플사랑: \$1,800.00 감사: \$920.00 기타: \$3,929.00
건축헌금 \$30.00	약 정: \$30.00	
선교헌금 \$8,940.00	속 화: \$390.00	중남미: \$8,55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3권 25호
2024년 6월 23일



2024년도 표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12:2)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목사관(248)227-5400

mcosf.org

< 성령강림후 다섯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2부(10:3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Presider

▲ 경배찬송 Opening Hymn / 43장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64번

주님 한 분 만으로,
문들이 머리 들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가 주인삼은

▲ 영광송 Gloria / 3장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같이
찬송 Hymn / 249장 (통249)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Come, we that love the Lord)

기도 Prayer / 최혜영 권사

기도 Prayer/ 이윤희 집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지켜주소서 -

- 눈을 들어 산을 보라 -

교회소식 Announcement /

영상 광고

▲ 봉헌 Offering /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 여호수아(Joshua) 1:1-6

< 천리 길을 가려면 >

To go a thousand miles

설교 Serm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파송찬송 Closing Hymn/ 354장 (통394) 주를 앙모하는 자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 축도 Benediction/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4년 6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6월 23일	1부	은혜교구	담당자	최혜영권사	사랑교구
	2부			이윤희집사	
다음주 6월 30일	1부	은혜교구	담당자	이경천집사	은혜교구
	2부			김세희권사	

금주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수1:6)

*인용성구/ 삼상23:4 삼상2:3 잠26:14,15



남플 여름 특강

성경암송 세미나

***일정: 7/3(수)-24(수)까지 매주 수요일 7:30**

이번 여름 특강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성경암송의 의미와 유익,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시119:10)고
노래한 시인처럼 말씀 암송의 체험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는 분들에게
**주제별 성경암송카드를 제공하오니,
세미나 참가 신청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애찬 섬김			
	금주 (6월 23일)		다음주 (6월 30일)
	전성희, 전정환권사		
	결혼기념감사		
	사랑교구		은혜교구

세상에서 격려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어서 격려하기보다 중상모략하며 절망시키려합니다. 그러나 부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의무가 있는데,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10:23-24).

이민신학에서는 이민자들의 상황을 "Marginality"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을 가리켜 Marginal Man 이라고 합니다. 참 슬픈 말인데, 우리 이민자들은 고국에서 Marginal Man으로 사는 것이 싫어서 이민을 왔지만,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는 영적인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혹시 근래에 어디론가 멀리 사라지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신경질이 늘어가고 마음이 점점 편해지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한숨 쉬는 적은 없는지요? 아무리 잠을 자고 쉬어도 계속 피로함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 소리 없는 분노와 좌절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심각한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인생의 홀어진 조각들을 귀중이 여겨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누군가를 절실히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약점을 보이는 것 같아 큰 웃음으로 혹은 과장된 몸짓으로 위장합니다. 이런 이들을 진정 돕는 것은 그들의 작은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우리를 이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 대속물이 되셨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10:19-20)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인데,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누구든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 보는 존재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욥15:2). 살다 보면 동풍이 부는 때도 있고 남풍이 부는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올 때가 있고 옷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출출 때(전3:4)가 있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남풍과 기쁨은 당연한 것으로 흘려보내고 동풍과 슬픔은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지혜로운 사람은 동풍이 불 때 품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 우린 온갖 패배감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 중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도, 이는 일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이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치 않고 우리의 고백을 듣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충성교구1 (중국-장은광)	충성교구2 (아이티1-김승돈)	충성교구3 (아리조나-이영호)
믿음교구1 (터키-송정렬)	믿음교구2 (쿠바- 김기현)	믿음교구3 (카자스탄-양재성)
믿음교구4 (아이티2-정광)	은유교구1 (볼리비아-김영모)	은유교구2 (도미니카-피터정)
소망교구1(니카라과1-김향자)	소망교구2 (이라크-손기주)	사랑교구1(니카라과2-김규현)
사랑교구2 (파나마-김재한)	은혜교구 (브라질-지덕진)	드림교구(키르기스스탄-임다윗)